

## 2018년 신작 「달봉이」 도내·외 순회공연 개요

- 강원도의 역사, 문화를 소재로 한 고유의 공연문화 상품의 개발
- 수준 높은 창작공연으로 도내 폐광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

### □ 공연개요

- 공연명 : 2018년 신작 「달봉이」 순회 및 교류공연
- 공연지역 : 6개 지역(춘천, 태백, 삼척, 영월, 정선, 경주)
- 시기/횟수 : '18. 6.~7. / 8회(예정)

연번	공연일시	공연장소(객석수)	횟수	비고
계		도내·외 6개 시군	8회	
1	6.27.(수) 19:00	태백문화예술회관(786석)	1회	
2	7.5.(목) 16:00/19:00	정선아리랑센터(612석)	2회	
3	7.12.(목) 19:00	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(940석)	1회	
4	7.14.(토) 19:30	경주 예술의 전당(1,100석)	1회	국공립페스티벌
5	7.19.(목) 19:00	춘천문화예술회관(974석)	1회	
6	7.25.(수) 16:00/19:00	영월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(395석)	2회	

- 극작/연출 : 이선희(1978년생)/정범철(1976년생)

### □ 작품개요(시놉시스)

- 아버지 태산은 오늘도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다.  
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다.  
그리고 아들 정훈은 그런 태산을 찾아 헤매인다.  
몇 해 전부터 반복되는 그들의 일상이다.

노년의 아버지는 어느 날인가 오십이 되더니 또 어느 날엔가는 마흔이 되고 서른이 되었다. 아버지는 점점 젊어졌다.  
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기억은 먼 과거로 돌아갔다.  
아버지는 고향에 가자고 졸랐고 달봉이가 보고 싶다고 떼를 썼다.  
지금은 폐광이 되어버린 아버지와 아들의 고향..  
그 곳으로 아들과 아버지는 여행을 떠난다.

그리고 아버지는 과거, 탄광에서 함께 일하던 죽마고우들을 만난다.  
조달구, 계봉순, 순철이... 줄여서 달봉이,  
그런데 이들,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영 어색하고 불편하다.  
청춘으로 돌아간 아버지와 꿈에 그리던 친구들  
달봉이의 속사정은 무엇일까...

## □ 공연 사전예약 방법

### ○ 온라인 예약

- 강원도립 극단 홈페이지(<http://kangwonprovincial.modoo.at/>) '2018년 신작 달뽕이' 게시판에서 예약
- 홍보물에 게시된 QR코드 스캔입력

### ○ 전화예약

- 강원도립 극단(033-255-0496~7)으로 예약

## □ 공연 포스터

강원도립극단 2018 신작

2018 06 27 (수) 태백문화예술회관 19:00  
 07 05 (목) 청선아트센터 16:00 / 19:00  
 07 12 (목) 삼척문화예술회관 19:00  
 07 19 (목) 순천문화예술회관 19:00  
 07 25 (수) 영월문화예술회관 16:00 / 19:00

사전예약 무료공연

온라인 예약 | 강원도립극단 공식 홈페이지 | 공연예약  
 전화 예약 | 033-255-0496

이비치의 소중한 기억... 그리운 아픔!

주최: 강원도립극단 후원: 강원도 춘천시 태백시 영월군  
 제작: 이선희 | 연출: 장영철 | 미술감독: 안옥현 | 의상감독: 박신우 | 조연출: 정민경 | 무대감독: 김성민 | 조명감독: 김영준  
 부대디자인: 김대현 | 의상디자인: 장민경 | 영상디자인: 김노아

주최: 강원도립극단 후원: 강원도 춘천시 태백시 영월군